

소식지 제6호

2012년 1월 10일 발행
발행인 주교 가토 히로미치
편집인 사제 나카무라 준



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마유다마제작

사회복지법인 마도

마도카 아라하마

미야기현 센다이시 와카바야시구 아라하마



함께 걷고 있는 시설 소개



쿠키제작
사회복지법인 세심회
작업장 히마와리

미야기현 게젠누마시 아카이와

장애를 가진분들과의 관계

함께걸자! 프로젝트 스텝
마쯔무라 케 (나가노 성구주 교회)

함께걸자! 프로젝트에서는 2곳의 통근 작업소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센다이시에 있는 「마도카 아라하마」와 게센누마시에 있는 「작업장 히마와리」입니다. 이 통근 작업장은 지적 장애를 가진 이용자분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지원 시설입니다. 양쪽 모든 작업소가 마찬가지로 운영모체인 사회복지법인도 지진, 쓰나미, 화재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용자분들도, 또 스텝분들도,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피해직후 「마도카 아라하마」

현재, 프로젝트는 계속적으로 「마도카 아라하마」에서는 마유다마를 사용한 상품을, 「작업장 히마와리」에서는 쿠키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재해지원에 생각을 가진 분들의 손에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통근작업소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 성과로 이용자분들에게 공임이 지급됩니다. 그 공임은, 자립해 생활을 유지하는 귀중한 수입원입니다. 현재 성공회 관계의 제시설, 제교회로부터 많은 주문이 들어와 이용자분들에게 대단한 동기 부여가 높은 작업입니다.

또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각각의 작업소의 팬이 늘고, 프로젝트의 활동이 종료 된 후에도 그 관계가 계속 된다면, 그것은 이후 양시설의 자립에 또 연결됩니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들은 이용자분들이 생활에 의욕이나, 희망을 가지길 기도하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부흥과 안정된 작업환경, 취로지원을 위해 함께 걸자고 생각합니다.

히마와리와의 만남

출근해, 주로 빵 제작과 수산가공장에서 작업을 통해 조금씩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분들은 자신이 벌은 급여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살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재해 직전에 게센누마 시내의 바다 근처보다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4월 1일 개소 예정인 건물은 재해와 쓰나미 그후 화재로 흔적도 없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 이용자분들이 당일 가진 것은 산쪽에 있는 지금까지의 시설이었습니다. 그 시설은 그대로 피난소로 이용자분, 가족, 스텝이 1개월을 보냈습니다.

히마와리와 우리 프로젝트를 연결해 주신 분은, 동경에 있는 장애인 시설「타키노카와 학원」의 타카세 성직후보생(동경교구)입니다. 타카세씨는 4월부터 게센누마 지역 장애인 시설에 지원으로 동경교구 타 시설과 협동으로 세심회와 만났습니다. 타카다씨는 센다이의 오피스를 방문하시고, 프로젝트에서 장애인에의 지원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행동지침에 의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회담 가운데 세심회, 특별히 히마와리가 제안한 히마와리의 스텝이 센다이의 우리들 오피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스텝들의 게센누마에서의 피해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피난소에 있는 이용자분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가족들도 힘들게 고생하는 것에 대해 말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히마와리가 가능한 빨리, 지금과 같이 운영되는 것이 큰 지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용자분의 가족도 용기를 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방법은 마도카와 같이 생산된 제품을 사들이고, 이용자분들에게 임금으로드리는 것입니다. 히마와리는 쿠키 제조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 쿠키를 사서 여러분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텝이 주 1~2회 정도 방문하고, 이용자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분들의 송영과 가설주택에 있는 가족에의 지원도 시작 되었습니다.

따뜻한 유대

작업장 히마와리
스텝 이토 준코

재해의 피해가 크고, 취로를 목적으로 한 이용자분들에게 공임 조차 지|불할 수 없는 현상과 쓰레기 모양으로 변한 마을에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제님으로부터 건네받은 말씀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리 「돕다」의 외침을 따뜻한 연대의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원프로젝트의 힘으로, 이용자는 일을 하고 즐거움을 그리고 지원하는 직원도 안심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같은 시선으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주신 「함께걸자」 여러분과 얼굴보는 지원을 또 제조한 과자를 구입해 주신 성공회 여러분은 연대로 이어진 동료라고 믿고, 만난것에 감사드립니다. 장애는 벽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해이고, 해는 마음의 힘과 말 그리고 지원으로 없어집니다. 내일로의 희망을 갖고 아주 멋진 웃음이 어둠이 없는 분에게 앞으로도 기원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히마와리에의 지원에 관해서

더 편리한 장소인 게센누마에 신축한 시설이 쓰나미와 화재 피해를 겪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지원의 의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일본성공회 부인회로부터 교구 부인회, 거기에서 교회부인회로 협력의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반응은 빨라, 여러 부인회로부터 신청서가 왔고, 쿠키를 계속 주문하는 분도, 교회도 계속 이어져 기쁨을 느꼈습니다. 매주 250 봉이라는 것은 상당한 부담. 더구나 생것으로 유효기간 1 개월, 한 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중, 지혜와 제휴의 힘을 활용해가며 근처 교회와 나눈다든지, 바자때 선전한다든지, 「맛있어요」 「더 필요해요」 등, 좋은 반응이 계속 됐습니다. 예약이 쇠도하고 희망에 따르지 못하는 것도 있었으며, 「히마와리」에 직접 주문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단지, 그 경우는 송금방법에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히마와리」 여러분으로부터 열심히 작업 중인 사진과 인사말을 받았습니다. 내년 8 월까지의 지원입니다. 쿠키를 드시고 「히마와리」를 기억해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기쁘겠습니다. 최신 예약 상황은 <http://nisseifu.holy.jp/himawari/> 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후에도 여러분으로부터의 따뜻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성공회 부인회장 무라이 케이코

2011 년 9 월부터 「히마와리」의 쿠키를 일본성공회 부인회의 네트워크에서 배포하는 것이 결정되었지만,

마도카 아라하마와의 만남

만남은 샌다이교회신도였던(현재.요코하마 성 안드레교회신도)로 부터의 한통의 전화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신자분으로부터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장애인 통근시설이 있고, 그곳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전화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의 만남을 모색하고 있던 우리들은 곧 그 신자와 함께 마도카 아라하마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쓰나미에 쓸려나간 전 장소가 아닌, 임대한 장애인 시설의 일부였습니다. 이사장과 시설장 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지적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가능하면 빨리 전과 같은생활 사이클로 되돌아 가는 것이 중요한것, 그것을 위해 통근시설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통근시설이 세워지는 것은 이용자분들이와 작업을 하는 것, 그 작업 성과를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이 들어오고, 그 금액으로 작업자분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마도카 아라하마는 피해전까지 과자제작, 종이제작등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설비가 유실 되어 계속해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급히 마유다마를 사용한 상품, 인형을 만드는 것을 해왔지만, 경험없는 상품으로 판매처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마유다마를 사용한 인형을 크리스마스 장식과 부활절 달걀로 제작해 인수해 주길 부탁했고, 그 상품을 일정한, 일년간 사들이기로한 제품을 9 월부터 납품하기 시작해, 주로 해외 성공회 교회, 단체에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 마유다마 장식을 손에 받은 분들이, 대재해를 마도카 아라하마의 이용자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지원에 연결되는 시도였습니다. 우리 스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도카를 방문하고, 봉사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용자분과 얼굴을 잇고, 그 관계를 넓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원이 종결되어도 마도카 활동은 계속됩니다. 마도카는 샌다이 시내의 새로운 토지에서 재건이 결정되었습니다. 마도카에서 생산된 제품을 통해 오래 지원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마도카 아라하마와의



감 사

마도카 아라하마 스텝 마카무라 나카무라 마사토시

지적 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업 「마도카아라하마」는 46 명의 이용자가 과자, 종이 제작 판매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2011 년 3 월 11 일 동일본 대재해, 쓰나미에 의해 건물, 기계설비 전부가 파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용자 전원은 3.5Km 떨어진 중학교에 무사히 피난해, 희생자 없이 대피했습니다. 지금은 16Km 떨어진 샌다이시 타이하쿠구 타이하라의 「샌다이 작업 캠퍼스」의 일부를 빌려 마유세공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만든 제품은 「함께건자! 프로젝트」에서 사들여 주시고, 새로운 판매를 개척해 주신 뒤로, 판매도 성장했습니다. 수익의 전액을 이용자 급여로 환원해 생활비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의 활동은 큰 지원이고, 도 제작의 의욕과 열정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함께

함께건자! 프로젝트 스텝 후쿠자와 마키코(미국체재)

「함께건자!」스텝으로 활동하고, 지적장애자 취로 지원시설「마도카 아라하마」(이하「마도카」)지원에 종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재해 쇼크와 그후 큰 생활의 변화를 강하게 받은 이용자분에게 생사활동을 계속하는 것, 도 자신의 제작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큰 지원 노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마도카 직원분들과 상품기획과 판매루트 확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임시작업소는 도구도 한정되었지만, 이용자 분들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의 손으로 고안해, 손작업 도구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유다마 제품을 만드는 이용자분들로가 그것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직원분들의 모습을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11 월에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rafts Fair 에서 「함께걷자 프로젝트」의 포스터를 내걸고, 마도카의 마유다마 장식과 부흥다루마를 출품했습니다. 12 월에는 같은시 St. Mark's Episcopal Church 에서도 마유다마 제품 판매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1 월에는 일본성공회 재해 지원활동을 소개하는 포럼도 개최했습니다. 마도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전하기 위해 여러가지 말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어도 재해로부터 9 개월 지난, 그후 피해지의 구체적인 정보가 전해지지 않은 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할까가 저의 지금의 과제입니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에 관해서

「함께걷자! 프로젝트」는 일본성공회로서 처음 관구차원에서 세워진 재해지원 구조입니다. 각교회, 각교구, 각단체 활동과 함께 일본성공회 전체에서 피해자와 함께 걷고자 하는 바람의 현상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동일본 대재해 각교구 대책 본부 담당자회」에서 승인하고, 실제운영에 관해서 상의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운영위원회」를 결정했습니다. 집행기관으로 센다이 오피스와 각 베이스를 설치하고, 각각 전임 스템을 임명하고 프로그램 실시에 다달았습니다.

10 월에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의 규정, 조직이 결정되고, 그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우에마쓰 수좌주교를 대표로 하고, 10 명 이내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가토 도호쿠교구 주교를 본부장으로 그 아래에 관구사무소로부터 파견된 나카무라 준 사제를 종합 디렉터, 도호쿠교구의 하세가와 키요즈미 사제를 프로그램 디렉터, 동경교구 마쓰무라 유타카씨를 사무장으로 그 4 명에 본부 회의를 구성하고 집행했습니다. 본부회의 아래 각 스템이 설치되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각 스템은 베이스에 속한 지역과 카테고리 마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준비와 봉사자 스템의 확보등을 하며 실행했습니다. 가마이시 베이스는 홋카이도교구의 지원, 오나하마 베이스는 교토, 오사카, 고베의 3 교구의 지원으로 각각 「가마이시 희생자 지원센터」 「오나하마 성 디모데 봉사자센터」의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2 곳 이외에는 센다이권 베이스에 속한경우, 센다이로부터 각각의 지원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일본 국내, 전세계로부터의 헌금에 의해 의지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 회계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구사무소에 의해서 헌금의 입금부터 결산까지 처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관구사무소에 모아지고 감사를 받은 후에 결산하고 처리 했습니다. 또 오피스, 베이스의 유지 운영과 프로그램의 실시등의 출금에 관해서는 규정이 설치되었고, 각각의 레벨에서 책임자가 견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처리에 관해서는 적절한 단계에서 공표하고, 단계마다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스템은 각 교구로부터 신디, 교역자, 또한 각교구 교무소, 교구 사무소 스템, 관구 사무소 스템도 넓은 의미에서 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실체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것것도 합해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봉사자 모집 알림

각 베이스에서 봉사자 모집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가마이시 베이스, 오나하마 베이스에서는 연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지만, 상황의 변화가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직접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게재 정보를 주위 분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RL: <http://www.nskk.org/walk/index.html>】



『함께 걷자! 프로젝트』 사무국

【open】월~금 10:00~17:00 【close】토,일, 축일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초 3-4-5 크라이스 빌딩 2층

TEL:022-265-5221 FAX:022-748-5321